

공공데이터베이스 개발사업의 개선방향

Public Database Development Policy : A Critical Perspective

임성택/고려대학교 경영정보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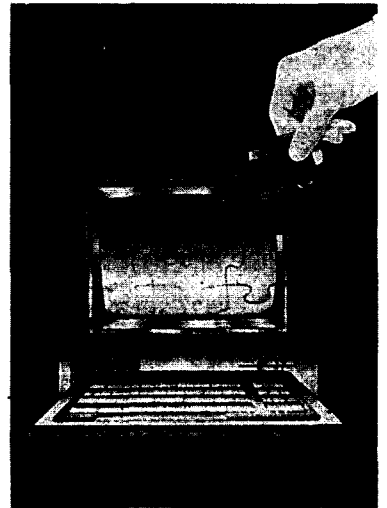
Rim,Seong-Tak./Ph.D Assitant Professor, Korea University

최 근들어 "인터넷(Internet)" "전세계적인 망(World Wide Web)" "초고속정보통신망(information superhighway)" "국가정보기반(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등이 핫이슈가 되어 자주 언론매체에서 거론되고 있으며, 선진 각국에서는 미래의 정보산업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정보고속도로라 불리우는 이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구축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고속도로의 구축은 유통될 정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가령 아무리 넓은 고속도로가 만들어졌다해도 실어나를 상품이 없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처럼 유통될 정보(데이터베이스)가 없는 통신망은 생각할 수 없다. 심지어는 우리의 통신망에 외국의 데이터베이스만을 실어나르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용자의 정보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여러가지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은 초고속정보통신망 성공의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더우기 PC와 모뎀 가격의 하락, 무선/이동통신등의 발달은 기업이나 개인의 생활에 있어서 데이터베이스의 필요성을 더욱더 증대시키고 있다.

우리 정부에서도 이러한 데이터베이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공데이터베이스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 주내용은 총 8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94년부터 4년간 매년 백개 정도의 공공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여 공중망에 접속하여 일반에 개방한다는 것이다. 개발과제는 국가정책적인

차원을 고려,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에서 국내데이터베이스 개발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데이터베이스개발과제를 선정하며 체신부에서 선정된 과제를 확정하고 한국통신은 개발보급을 맡는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한국통신은 4년간 공공데이터베이스를 개발보급하는 틀이라할 수 있는 공공 데이터베이스계획을 확정했고 지난 5월 금년에 개발할 과제를 확정하여 업체를 선정하였고 이미 2차년도 사업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공공데이터베이스개발사업은 미래의 정보산업에서 데이터베이스가 차지하는 비중과 우리의 뒤떨어진 데이터베이스산업을 감안해보면 아주 환영할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현재의 사업진행 상황을 살펴보면 과연 이러한 사업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사실 일부에서는 과제를 제안해 무조건만



들고 보자는 인식이 팽배해 있으며, 이를 사업지원자금, 연구지원자금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조차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일반의 인식을 불식시키고 본래의 사업취지를 살리기 위한 사업의 개선방향을 모색해 보는 데 있다. 특히 세부 사업의 추진전략보다는 전체적인 사업의 흐름에 초점을 맞추어 다음의 다섯가지 개선책을 제시하였다.

첫째, 공공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정립할 것

공공데이터베이스개발사업이란 용어를 접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의문점은 과연 공공데이터베이스가 무엇인가하는 것이다. 추측컨대 공공데이터베이스란 용어는 우리만의 독특한 것으로서 공공데이터베이스개발사업때문에 생긴 것 같다. 일반인은 물론 공공데이터베이스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조차 공공 데이터베이스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지를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애매하기는 체신부 공공데이터베이스개발사업계획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공공데이터베이스를 "개념적으로 경제사회적으로 필요 하나 민간이 독자적으로 개발하기 곤란한 데이터베이스, 다수의 국민이 필요한 정보(공공부문, 민간부문 포함)를 수록한 데이터베이스, 시간과 교통등 사회적 물류비용을 줄일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로 정의하고 구체적인 예로서, 산업경쟁력강화를 위한 산업기술등 전문데이터베이스, 국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생활데이터베이스, 지역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데이터베이스, 장애자 복지증진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식의 정의는 공공데이터베이스를 구분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을 제시해 주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과제선정시에

문제를 야기시키게 된다. 사실 현재 선정된 과제들을 보면 공공데이터베이스란 이름하에 거의 모든 분야의 데이터베이스를 다 망라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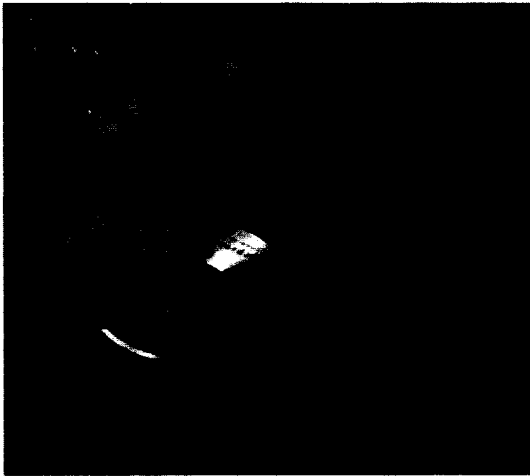
데이터베이스를 구분할 수 있는 어떤 분류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면, 비록 그 기준이 논란의 여지가 있다하더라도 과제를 선정할 때 크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기준의 예로서는 공급측면에서 자료의 공급원(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들 수 있고, 수요측면에서 데이터베이스의 목적(공익성과 상업성)을 들 수 있다. 이 두가지 기준으로 공공데이터베이스를 정의할 경우 공공데이터베이스는 자료의 공급원이 공공부문이고 데이터베이스 구축목적이 공익성에 있는 경우로 정의될 수 있다. 이처럼 구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정의하게 되면 사업추진전략을 수립하기가 쉽고 어떤 과제가 선정되어야 하는 지가 좀 더 명확하게 될 것이다.

둘째, 사업목표들간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가급적이면 단일화할 것

모든 사업의 성패는 사업목표의 명확성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현 공공데이터베이스개발 사업을 살펴보면 사업목표들이 서로 추구하는 바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의 공공데이터베이스개발사업은 상업성(국내 데이터베이스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업성이 있는 부문)과 공익성(국가적으로는 아주 시급하지만 민간업자가 참여하기 어려운 부문)이라는 두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는 듯한 인상이다. 상업성과 공익성은 서로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동시에 한 사업에서 추진할 일이 아닌 듯싶다.

사업목표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것이겠지만 현

제의 선정기준을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현재의 선정기준은 수요측면에서 과제의 타당성을 살펴보고, 공급측면에서 실현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과제의 타당성은 공공성, 시장성, 시급성, 기반성, 독창성, 부가가치성, 유용성에 의해 평가하고, 실현가능성은 안정성, 품질성, 지속성, 운영성, 성공가능성에 의해서 평가되었다. 공공성과 시장성 이란 평가기준을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 모두 적용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



단일화된 사업목표(선정기준)에 의해 사업이 추진된다면 사업추진전략을 수립하기도 훨씬 용이할 것 같다. 가령 데이터베이스수요기반을 확대하여 국내 데이터베이스 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경우에는 고품질소량생산의 전략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지금처럼 과제의 수를 너무 많이 하면 자칫 잘못하여 수준이하의 데이터베이스를 양성하고, 군소업체들을 난립을 초래하여 데이터베이스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본래의 목표를 흐리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원래 과제의 수를 다양하게 한 것은 민간업자들로 하여금 데이터베이스개발의 붐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생각되지만, 이러한 소비자들의 데이터베이스수요창출과 민간업자들의 데이터베이스개발의욕은 몇개의 시범적인 데이터베이스가 성공리에 개발 이용됨으로서 만들어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개발과제의 큰 분류기준은 그대로 유지하되, 개발데이터베이스의 과제수를 대폭 줄였으면 한다. 사업성이 큰 몇개의 pilot 데이터베이스에 집중투자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pilot 데이터베이스가 상업적으로 크게 성공한다면 데이터베이스 개발붐은 자연적으로 조성되리라 생산한다.

반대로 상업성은 없지만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이터베이스의 개발이 사업의 우선 목표라면 과제의 갯수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지만 분야면에서는 사업목표에 맞는 진짜 공공데이터베이스(?) 에 한정해야 할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데이터베이스산업여건을 감안하면 우선은 수요창출과 데이터베이스산업의 활성화란 목표가 더 시급하기 때문에 상업성이 있는 분야에 집중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셋째, 과제선정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초창기에 있는 우리로서는 처음부터 데이터베이스의 생산을 민간부문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처음에는 정부주도로 데이터베이스개발이 이루어지다가 민간데이터베이스사업자들이 자생력을 갖춘 다음에 완전히 민간부문으로 이관하여 시장원리에 입각한 자유경쟁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데이터베이스 선진국인 미국의 경우에도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구성변화를 살펴보면, 초기에는 정부/공공기관이 데이터베이스제작을 주도하다가 점차 민간부문으로 바뀌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유럽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아직도 공공기관과 비영리기관을 중심으로 데이터베이스 제작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공공데이터베이스 과제의 선정도 그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한다. 다시말해 제 1 단계인 정부주도단계에서는 상업성이 있고, 데이터베이스수요를 진작시킬 수 있는 부문에 집중투자하고, 제 2 단계에서는 정부는 상업성이 없지만 공익성이 큰 부문을 집중지원하고, 상업성이 있는 부문은 민간업자들이 주축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제 3 단계 민간부문주도단계에서는 정부는 정부자료의 공개 및 여가 지 간접지원만을 하고 민간부문에서 주축이 되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넷째, high tech을 이용한 데이터베이스구축이 필요

현재의 문자, 온라인 위주의 데이터베이스개발보다는 멀티미디어, CD-ROM 등 각종 첨단정보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구축을 유도했으면 한다. high tech 중심의 데이터베이스 개발은 이용자의 욕구를 만족시키고 흥미를 유발시킨다는 측면에서 아주 중요하다. 미국의 경우를 보자. 지난 20년 동안 미국의 생활정보시장을 지배해오던 CompuServe가 시장점유율면에서 Prodigy에 의해 2위로 밀려났다. Prodigy가 등장과 함께 1위의 자리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CompuServe와는 달리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바탕으로 사용자 기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이는 최근 급부상한 America Online도 마찬가지

다.

CompuServe를 비롯한 기존의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그래픽인터페이스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바꿀 수 없었던 것은 이미 오래 전의 기술로 만들어진 기초적인 기능들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데는 큰 투자와 위험이 따르기 때문이었다. 최근 CD-ROM 데이터베이스의 발달은 데이터베이스의 사용을 전문가 집단에서 일반에게로 대중화하는 데 기여했다. 우리는 기왕이면 먼 장래를 내다보고 이러한 첨단 정보 기술을 이용했으면 한다.



여기서 하나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선진외국 사례에 대한 철저한 분석의 필요성이다. 선진외국의 대표적인 데이터베이스들 및 기술동향등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단순히 데이터베이스 공급업자, 개발업자의 숫자등과 같은 통

계적인 자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분야 별로 성공적인 데이터베이스사례(아니면 실패사례)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대표적인 성공데이터베이스들의 중요성공요인들(Critical Success Factors)를 면밀히 파악하여 이들을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지를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과연 이들 데이터베이스들을 성공하게 만든 사회적, 기술적 기반은 무엇인가?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할 때 예상되는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어떠한 데이터베이스개발, 유통체제를 갖고 있는가? 이런 철저한 분석이 선행된 후에 과제를 선정할 경우 그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민간사업자도 선정/관리하기도 쉬울 뿐더러 아주 쓸모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데이터베이스 상품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데이터베이스 마케팅)

여기서 데이터베이스마케팅이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마케팅이란 의미가 아니고, 데이터베이스를 상품으로 생각하고 데이터베이스자체에 대한 마케팅을 의미하는 것이다.

질 좋은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데이터베이스의 존재를 홍보하는 일이다. 다시말해 데이터베이스의 유용성, 활용방안, 부가가치성에 대해 대중매체를 통한 집중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신제품에 대한 홍보는 마케팅담당자는 물론 소비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 소비자는 자신의 욕구를 보다 만족스럽게 충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되고 마케팅 관리자는 소비자의 욕구 충족을 통하여 자신의 임무를 달성할 수 있게 된

다. 데이터베이스도 서비스 지향적인 상품이다. 따라서 성공적인 공공데이터베이스개발을 위해서는 소비자의 정보욕구와 특성 및 면모(profile)에 기초하는 마케팅지향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공공데이터베이스 개발사업에 마케팅지향적인 시각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첫째, 시장조사를 통해 데이터베이스 이용자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둘째, 고객이 원하는 데이터베이스 상품이 있음을 알리고, 그것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유통구조를 개발하여야 한다. 셋째, 사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데이터베이스를 향상시킬 때 이를 반영시켜야 한다.

맺음말

정보산업에서 데이터베이스가 차지하는 비중이나 컴퓨터나 통신분야의 발달(PC와 모뎀가격의 하락, 무선/이동통신의 발달)로 미루어볼 때 데이터베이스의 중요성은 갈수록 높아져야 할 전망이다. 이런 중요성을 감안해 볼 때 정부의 공공데이터베이스개발사업은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그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몇가지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느껴 그것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다.

예를들면, 공공데이터베이스의 개념과 사업목표를 확실히 하는 것, 이러한 사업목표에 따라 단계적으로 사업을 실시할 것 등이다.

이런 몇가지 측면을 보완하여 사업을 수행한다면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DB]**